

## <사경센터 국제포럼 청년세션 1부 기획안>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사경센터 다목적홀

### 세션주제 : 청년문제, 사회적경제로 풀어내기 (가칭)

#### 1부 : 한국과 일본, 사회적 경제 안에서 청년의 자립을 고민하다

주관 : 한일청년포럼, 함께일하는재단

초청기관 : K2인터내셔널 일본, 서울형 사회적기업 (주)연금술사

내용 :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실업을 넘어 구직을 포기하는 '니트'상태에 이르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취약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로서 일본의 'K2인터내셔널그룹'과 한국의 '(주)연금술사'의 사례를 비교해보고, 한일 양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청년지원에 대해 생각해본다.

#### <요약>

시간 : 2시30분~4시20분

사회 : 김창주 (함께일하는재단 전략기획팀장)

발제1(35분) : "포괄적 청년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이와모토 마미 (K2인터내셔널 그룹, NPO법인 Human Fellowship 대표이사)

발제2(25분) : "한국 니트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과 방법론"

박진숙 (서울형 사회적기업 (주)연금술사 대표이사)

토론(30분) :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협동조합 살림, 한일청년포럼 기획단)

#### <내용>

##### 발제1 : "포괄적 청년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 포괄적인 청년지원이 필요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보여주고, K2의 포괄적 청년지원 사례를 발표
- 처음에는 니트, 히키코모리 등 마이너리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이저리티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 일본 내에서도 K2가 이러한 방식의 청년지원에 있어서는 선구자급인데, 민간영역인 K2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해오니까, 행정적인 담당자들도 차츰 공동생활 지원 등, 서포트 스테이션 등의 방법론을 이해하면서 따라오게 되었다.

##### 발제2 : "한국 니트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과 방법론"

- 사회적기업으로서 저소득 니트 청소년과 접숙한 사례를 발표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단순히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 가장 필요한 핵심은 '장기근속'이다. (기술 등은 교육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울 수 있음)
- 그것을 하려면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한국의 저소득 니트 청소년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왜 일할 수 없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질 좋은 노동에 관심이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 **토론 :**

- 김창주 팀장 (5분) : 중간지원기관의 입장에서, 선구적이어서 사회나 행정기관의 이해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미션 지향적 사회적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이상준 (5분) : 청년을 지원하는 사회, 기관, 조직, 기성세대들의 움직임에 대해, 일반 청년으로서 어떤 해석을 내리게 되는지. 니트 청년들과 접촉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적인 청년'은 누구일까. 모두가 '개별'이 되어있지 않은가. 또 기성 세대들은 청년들은 '현재'에 '쑥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 묻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안전한 접촉과 단절을 하면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청년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몰입을 강요하는 사회가 주는 부담감, 충성과 몰입을 강요하지만 fully include하지 않는 사회, 접촉과 단절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사회의 모순)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동시대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김지경 박사 (5분) : 청소년 정책 연구자로서 발제 내용들에 대해 느낀 점.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 소개.
- 추가 발언 혹은 자유 토론